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6/5/2022

22-24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홍) 성령 강림 대축일 낮 미사
(Rd) Pentecost Sunday



“성령을 받아라.”

“Receive the Holy Spirit.”

요한 20,22/ Jn 20:22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화/목/금

Su/Tu/Th/F 9:00am-4:00pm

월/수/토 휴무 M/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윤(심포로사)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군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6월 / June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For families

We pray for Christian families around the world; may they embody and experience unconditional love and advance in holiness in their daily lives.

성령 강림 대축일 (다해) / Pentecost Sunday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The Spirit of the Lord has filled the whole world and that which contains all things understands what is said alleluia.

【제1독서/First Reading】..... 사도 2,1-11 / Acts 2:1-11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Lord, send out your Spirit, and renew the face of the earth.

【제2독서 / Second Reading】..... 1코린 12,3ㄷ-7.12-13 / 1 Cor 12:3b-7, 12-13

【부속가 / Sequence】 <성령송가 / Veni, Sancte Spiritus>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빗나간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알렐루야. Alleluia, alleluia.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Come, Holy Spirit, fill the hearts of your faithful and kindle in them the fire of your love. ◎

【복음 / Gospel】+ 요한 20,19-23 / Jn 20:19-23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of the marvels of God, alleluia.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6/5 10am	6/5 3pm	6/7 7:30pm	6/8 10am	6/9 10am	6/10 7:30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율리안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에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블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신바오로, 홍마리아고레띠, 주윤철 미카엘, 이정숙, 강이나시오, 김엘리사벳		김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김대식 베드로 이미카엘
생미사(L)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 김다니엘,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조앤, 박우슬라 가정, 박안셀모, 정윤정, 이니콜라스&테레사, 박마리아, 윤요세피나, 조타데오&마리아, 미셜&에버리 조쎌, 유재숙 카타리나, 염카타리나, 김말가리다, 김미란 모니카 가정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여기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Let us all pray for the intentions.

성령의 체험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특히, 교회를 가르치는 신부님께서는 늘 수업시간 전에 성호를 긋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곤 하였습니다. 독특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보통 신부님의 기도 중에 성령을 기도하시는 모습은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성령은 무엇일까. 정말 성령세미나에서 말하는 것이 성령인가 하며 궁금해 하였습니다.

신학원론과 교의신학[教義神學theologia dogmatica, dogmatic theology] 시간에 교수 신부님께 여쭙어 봐도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냥 미완의 숙제로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종신서원 피정을 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달간 침묵의 피정 이었습니다. 한 2주간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졌고 매일 주어지는 묵상의 성서 구절들은 저를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 자신이 싫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수도원의 큰 성당에 감실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 그냥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제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때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맴돌기 시작했고, 무언가의 힘에 의해 지금까지 읽었던 성서 구절이 구구절절이 가슴 속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구나, 주님의 영이라는 것이” 순간의 찰나였고 몇 주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평화로 바뀌고,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함께 하고 있다는 표징이입니다. 절망에 빠져 좌절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처음 나타나시어 평화와 생기를 불어 넣으며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새로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십니다.

종신서원 피정을 통하여 복음에서와 같은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저의 신앙 전반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꺼이 주님께 제 자신을 내 놓아야 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분명 우리를 위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부정적인 생각과 주님께 마음 내어놓지 못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슬기롭게 영원을 찾게 하고, 깨달음을 주시어, 주님의 신성한 진리의 빛으로 저의 머리를 비추시며, 의견의 주시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고 천국을 얻기에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하게 하시며, 굳셈의 주시어, 주님을 모시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저의 구원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를 용감히 이겨내게 하시며, 지식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을 알고 저를 알며 성인들의 예지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효경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을 섬김이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일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께 경외심을 갖고 어떤 일로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이번 성령강림 대축일 미사때 이모든 것을 청해 봅니다.

김대선 신부

성인 말씀

“오 성령이여, 내 마음에 풍성히 내려오소서.

이 방치된 주거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흠어지십시오, 당신의 밝은 광선.”

-성 아오스탕-

Sequence <Veni, Sancte Spiritus >

Come, Holy Spirit, come! And from your celestial home Shed a ray of light divine!
Come, Father of the poor! Come, source of all our store! Come, within our bosoms shine.
You, of comforters the best; You, the soul's most welcome guest;
Sweet refreshment here below;
In our labor, rest most sweet; Grateful coolness in the heat; Solace in the midst of woe.
O most blessed Light divine, Shine within these hearts of yours, And our inmost being fill!
Where you are not, we have naught, Nothing good in deed or thought,
Nothing free from taint of ill.
Heal our wounds, our strength renew; On our dryness pour your dew;
Wash the stains of guilt away:
Bend the stubborn heart and will; Melt the frozen, warm the chill;
Guide the steps that go astray.
On the faithful, who adore And confess you, evermore In your sevenfold gift descend;
Give them virtue's sure reward; Give them your salvation, Lord;
Give them joys that never end. Amen. Alleluia.

Entrance Hymn: Come, Holy Ghost

Come, Holy Ghost, Creator blest, And in our hearts take up thy rest;
Come with thy grace and heav'nly aid To fill the hearts which thou hast made;
To fill the hearts which thou hast made.

O Comforter, to thee we cry, Thou heav'nly gift of God most high;
Thou font of life and fire of love, And sweet anointing from above;
And sweet anointing from above.

Closing Hymn: Come, O Holy Spirit

Come, O Holy Spirit, come! And from your celestial home Shed a ray of light divine!
Come, O holy Spirit, come! Come, O Father of the poor! Come, O Source of all our store!
Come, within our bosoms shine! Come, O Holy Spirit, come!

You, of comforters the best; You, the soul's most welcome guest; Sweet refreshment here below;
Come, O Holy Spirit, come! In our labor, rest most sweet; Grateful coolness in the heat;
Solace in the midst of woe, Come, O holy Spirit, come!

Saint Quotes

"O Holy Spirit, descend plentifully into my heart.
Enlighten the dark corners of this neglected dwelling
and scatter there, Your cheerful beams."

St. Augustine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Mass Time	해설/ Narrator	독서/ Readers	전례부/Altar Server	반주/Organist	봉헌/ Offertory
6/5 Sun 10am			안세실리아 / 박아가다		
3pm		Maryann Angel Michael Angel	Matias Kim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6/6 Mon	No Mass				
6/7 Tue			박아가다	조율리안나	
6/8 Wed			안세실리아	김미카엘라	
6/9 Thurs			최클라라	김미카엘라	
6/10 Fri			김마지아	조율리안나	
6/11 Sat	No Mass				
6/12 Sun 10am			박아가다/ 최클라라		
3pm		Cecilia Park Daisy Ramos		Juliana Cho	Antoinette Cecilia Cosme

예수 성심 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본당소식 / Parish News

◆ 양업회 (Senior Ministry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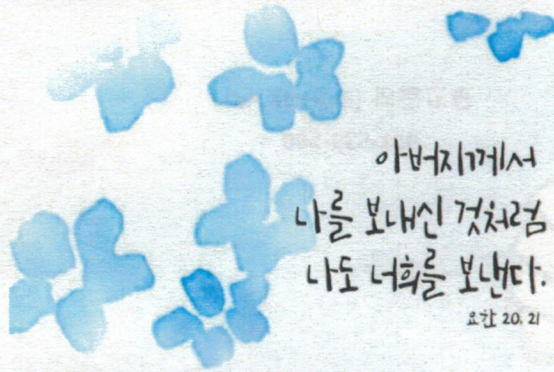
일시(Date&Time): 6/5(일) 식사 후
장소(Place): 양업관 5번 교실

◆ 교구은퇴사제을 위한 2차헌금 (Diocesan Priests' Retirement Collection)

일시(Date&Time): 6/12(일/Sun)

◆ 전례부 모임 (Altar Server Meeting)

일시(Date&Time): 6/26(일)
장소(Place): 양업관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Jn 20, 21



▪ 주일학교 여름 캠프 Fundraising
판매: \$

Fund Total as of 5/15: \$1,350

주일학교 여름 캠프 (Summer Camp)

7월 8일(금) - 7월 10일(일)

참가비: \$150/person

등록 마감: 6월 15일(수)

장소 : 48480 foolish pleasure rd. Aguanga , CA 92536

대상: 1학년~9학년 (3학년 이하 부모참가 필수)

Building bridges : Renewing the sense of the community in the new heaven and earth.

새 하늘 새땅에서 공동체로 거듭남에 있어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신앙의 연결 고리를 만들수 있는지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 부모님도 함께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족한 캠프 비용 모금을 위해 매주 주일학교에서 커피와 레모네이드를 판매 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 2024년 6월 사목 협의회 제단체 명단

사목협의회

전례분과: 김병찬(마지아) 홍보분과: 박도원(분도)
교육분과: 김현숙(로사) 시설분과: 차귀환(세바스티아노)
선교분과: 윤광주(심포로사) 구역분과: 이정민(세실리아)
사회복지분과: 이명화(테레사) 미래발전위원회: 유병오(캐시미어)

제단체

주일학교: 송민정(세실리아) 연령회 / 양업회: 이마태오
전례부/ 영어미사: 김병찬(마지아) 성령기도회: 신숙자(모니카)
해설단: 송혜인(율리안나) 성심봉사회: 조한나(율리안나)
성가대 단장: 강재복(마리미카엘라) 성물방: 김선장(말가리다)
제대회: 박계녀(세실리아) 방송시설: 윤원균(바로로)
빈센치오회: 안국명(베드로) 주방관리: 안은주(루시아)
헌금카운트: 강서원(프란치스코) 입금담당: 변경자(리오바)

구역장

경의: 김혜진(세실리아) 지식: 안영민(세실리아)
효경: 정혜분(바올리나) 의견: 이정민(세실리아)
통달: 현애리(마리안나) 지혜: 강운정(마리아)
군샘:

재정위원회

김석원(토마스), 공경복(루시아), 안우일(요한)

5/29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959 3pm: \$272 (30명)
교무금 Envelope	\$2,170 강두섭, 이순혜, 한명숙, 임판수, 이동욱, 변마태오
교구발전기금 DDF	\$110 변마태오, 이동욱
합계 Total	\$3,511

주보광고 / Bulletin Ad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Taiyos Sushi&Poki

951-343-1112

11120 Magnolia Ave., Riverside

(Westgate Plaza)

http://taiyossushi.com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교리상식 101

19. 첫영성체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2항 참조),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영성체를 미루었다가(『가톨릭 교회 교리서』, 1244항 참조), 중세기에 이르러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숙도가 요구되면서 만 7세에 첫영성체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215년에는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영성체를 할 수 있게 규정하여 만 13-14세가 된 어린이들이 첫 고해성사와 함께 영성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첫영성체에 적합한 연령이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으로 1910년에는 이성을 갖기 시작에 첫영성체를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세 전후에 첫영성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